

2024 파리 올림픽 열기에 이어 제10회 주불 대사배 태권도대회 개최

- 올해로 10회를 맞는 주불 대사배 태권도 대회,
- 프랑스 내 K 스포츠 열풍 견인해

주프랑스한국문화원(원장 이일열)은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프랑스 태권도연맹(FFTTDA)과 공동으로 12월 14일(토) 파리 쿠베르탱 경기장 (Stade Pierre-de-Coubertin)에서 제10회 주불 대사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한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의 열기를 이어 시니어뿐 아니라 차기 올림픽에 참가할 태권도 유망주들인 주니어도 대상으로 체급별 대회를 진행하여, 210여 명의 태권도인이 참가할 예정이다.

프랑스에 태권도를 보급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창설된 본 대회는, 2008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프랑스 내 대표적인 태권도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년은 1994년 파리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2000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하계 올림픽에 이어 개최되는 동 대회는 태권도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대회이다.

현재 프랑스 내 태권도 클럽은 약 900여 개, 수련인구는 총 50,000여 명으로 전체 수련생 중 60%가 18세 이하 청소년과 청소년층이 차지하고 있어 프랑스 내 태권도의 장래가 매우 밝은 상황이다. 실제로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 프랑스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프랑스는 동 올림픽에서 공동 4위를 기록하였다.

1995년 리옹에서 창립된 프랑스태권도연맹(FFTTDA)은 태권도 및 인접 종목(합기도, 당수도, 수박도)의 프랑스 내 체육활동의 지원을 담당하는 프랑스 내 대표적인 태권도 기관이며, 태권도 애호가들 간 실질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매년 태권도 챔피언십, 프렌치 오픈 등 다양한 태권도대회를 개최할 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프랑스 내 태권도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프랑스 내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력한

동 연맹은 2024 한불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10회 주불 대사배 태권도대회에서는 20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과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태권도 선수 알테아 로랑과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시리안 하베가 참석하여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프랑스 태권도인들의 관심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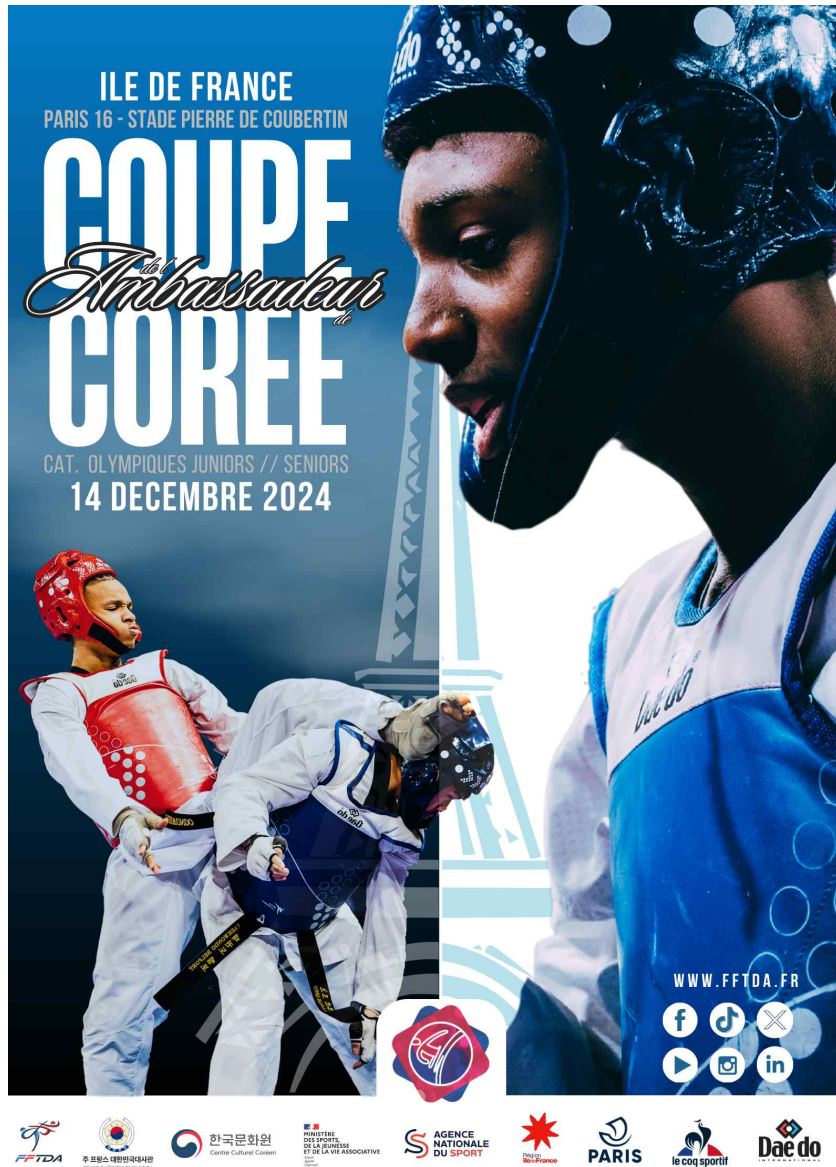
- ▶ 행사명 : 제10회 주불 대사배 태권도대회
- ▶ 주최/주관 : 프랑스태권도연맹,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주프랑스한국문화원
- ▶ 협력/후원 : 프랑스 체육부, 일드프랑스, 파리시, Daedo, Le Coq Sportif
- ▶ 행사일시 : 2024 12월 14일 (토) 8:15~17:30
- ▶ 장 소 : 피에르 쿠베르탱 경기장(82 Av. Georges Lafont, 75016 Paris)
- ▶ 입장료 : 무료
- ▶ 문 의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01 47 20 84 15)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이일열
	언론 담당자	실무관	이성은 (+33-01-4720-8648)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2024년 제 10회 주불 대사배 태권도 대회 포스터



▲ 2018년 제 8회 주불 대사배 태권도 대회 경기 사진
 © 프랑스태권도연맹(FFTDA)-Amandine Lauriol 제공



▲ 2018년 제 8회 주불 대사배 태권도 대회에 참가한 수련생 사진
 © 프랑스태권도연맹(FFTDA)-Amandine Lauriol 제공